



지난 26일 오후 광주-KIA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프로야구 LG 트윈스와 KIA 타이거즈 경기. 6대 0으로 승리한 KIA 선수단이 챔피언스필드 100만 관중 돌파를 기념하며 관중에게 인사하고 있다. <KIA타이거즈 제공>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화봉송 테스트 이벤트
29일 강릉 일원서

오는 29일 강원 강릉시 일원에서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화봉송 테스트 이벤트가 열린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성화봉송은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9일까지 101일간, 동계패럴림픽은 내년 3월 2일부터 9일까지 8일간 각각 열린다.
이번 테스트 이벤트는 실제 올림픽 성화봉송에 준해 개최된다.
성화봉송은 이날 오전 9시 12분께 경포 해변 광장에서 리컴벤트 자전거 이색봉송을 시작으로 오죽헌, 강릉 시내를 거쳐 오후 6시 30분께 시정 일영 대종각 공원에 도착한다.

강릉시 구간 성화봉송 코스는 총 33.8km다. 주자구간 22km, 차량 봉송 8.7km, 이색봉송(리컴벤트 자전거) 2.5km로 구성돼 있다. 주자는 125명으로 주자 당 200m 안팎을 봉송한다.
이번 성화봉송 테스트 이벤트는 동계올림픽 성화봉송 행사의 유일한 테스트 이벤트 봉송행사다.

테스트 이벤트 성화봉송은 본 행사와 달리 성화에 불을 켜지 않고 주자는 대역이 나선다.
강릉시 관계자는 "성화봉송 테스트 이벤트는 실제 성화봉송 행사에 대비한 미비점을 찾아 보완하고 올림픽 시적을 알리는 봉송행사를 시민과 함께 축제로 준비해 나가기 위한 리허설로 진행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성화는 10월 24일 그리스에서 채화돼 11월 1일 인천공항부터 국내 봉송을 시작한다.
101일간 전국 17개 시·도를 거치고 강원도 18개 시·군을 거쳐 내년 2월 8일 강릉 구간을 봉송한 후 일영대종각 공원에서 전 시민이 참여하는 지역축하행사(안치식)을 전야제로 개최하고 개막일인 2월 9일 강릉에서 출발해 평창 알펜시아 개회식장에 도착한다.

성화봉송단은 차량 40여 대로 구성되며, 전체 성화봉송 주자 코스는 2018km이고 주자는 7500명으로 구성된다.
/연합뉴스

‘무死球 다승왕’... 양현종 프로야구 역사 바꾼다



지난 26일 광주-KIA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프로야구 LG 트윈스와 KIA 타이거즈 경기. 1회초 KIA 선발투수 양현종이 역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승과 우승이라는 꿈의 목표가 '호랑이 에이스' 양현종을 기다린다.
KIA 타이거즈는 지난 26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LG 트윈스와 경기에서 6-0 승리를 거뒀다. 1승 이상의 많은 의미가 담긴 값진 승리였다.
이날 경기는 KIA의 2017시즌 홈 최종전이었다. 100만 관중 돌파를 기념하는 유니폼을 입고 팬들에게 정규시즌 마지막 인사를 올리는 자리였던 만큼 승리 뒤 밝은 표정으로 팬들 앞에 서는 게 선수단의 목표였다.
무엇보다 2위 두산 베어스에 '공동 1위' 자리를 허용하며 우승에 비상이 걸린 만큼 무조건 이겨야 하는 경기였다. 그리고 또 하나, 22년 만의 토종 투수 20승이라는 대기록도 남아있었다.
많은 것이 걸렸던 있던 경기는 '주장' 김주찬, 개인 최다 홈런 기록(19)을 갈아치운 안치홍의 홈런과 양현종의 7이닝 5피안타 4탈삼진 무실점의 호투로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됐다.
시즌 내내 경기장을 가득 채웠던 팬들은 '팬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챔피언스필드 최초 100만 관중 돌파'라고 쓰인 현수막을 든 선수단에 환한 얼굴로 환호를

무사구 20승 올 시즌 187.2이닝 781명 상대 사구 없어
타이거즈 신기록 조계현 넘어 토종 선발 19승 달성
토종 선발 20승 22년만에...2000년대 첫 도전

보낼 수 있었다. 팀은 매직넘버를 6에서 5로 줄이며 한숨 돌렸고, 양현종은 '20승 투수'라는 타이틀에 도전할 기회를 살렸다.
35년 역사의 KBO리그 역사에서 20승 고지를 밟은 투수는 13명에 불과하다. 여기에 선발로서의 20승으로 한정하면 8명으로 압축됐다. 2000년대에는 외국인 투수들만 작성한 기록이다.
2007년 다니엘 리오스(두산·22승), 2014년 앤디 밴헤켄(넥센·20승), 2016년 더스틴 니퍼트(두산·22승 중 선발 21승)까지 세 명의 외국인 선수가 20승 투수로 포효했다.
토종 투수의 선발 20승은 1995년까지 거슬러 가야 한다. 만약 양현종이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kt와의 마지막 원정 3연전에 출격해, 승리투수가 된다면 LG 이상준에 이어 22년 만의 '토종 선발 20승' 투수가 기록된다.
타이거즈의 새로운 기록도 작성된다. 양현종은 26일 승리와 함께 앞서 1994년 조계현 수석코치가 가지고 있던 타이거즈 토종 선발(18) 기록을 새로 작성했다. 또한 구단 역사상 최다 선발승인 2002년 마크 키퍼의 19승에도 어깨를 나란히 했다.

양현종의 시즌 마지막 등판 결과에 따라 타이거즈 역사는 물론 KBO리그 역사도 달라진다. 정규시즌 우승이라는 간절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도 양현종의 승리가 필요하다.
또 하나 눈길을 가는 기록란도 있다. 바로 '0'으로 비어있는 양현종의 사구(死球)란이다. 양현종은 올 시즌 30경기에 나와 187.2이닝 동안 781명의 타자를 상대하면서 단 하나의 사구도 허용하지 않았다.
헤터와 다승왕 싸움을 하고 있는 양현종이 그대로 다승 1위 자리를 지키고, 마지막 등판을 사구 없이 마무리한다면 KBO리그 최초의 '무사구(無死球) 다승왕'이 탄생한다.
역대 최소 사구 다승왕은 2000년 정민태(현대)다. 그해 18승으로 공동 다승왕에 올랐던 그는 207이닝을 던지는 동안 하나의 사구만 기록했다.
올 시즌 타이거즈 좌완 최다승과 통산 100승 등의 기록행진을 펼친 양현종이 마지막 무대에서 우승과 20승이라는 꿈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리디아 고, 안방서 시즌 첫 승 도전

오늘 LPGA 뉴질랜드 오픈



뉴질랜드 교포 리디아 고(20)에게 오는 28일 시작하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뉴질랜드 여자오픈은 우승으로 부활을 알릴 좋은 기회다.
마침 회복세를 타고 있는데 고국에서 대회가 열린다. 게다가 이 대회는 리디아 고가 2013년, 2015년, 2016년에 우승컵을 들어 올린 '닷컴'과 마찬가지로, 달라진 점이 있다면 올해부터 이 대회가 LPGA 투어에 들어가 재정비됐다 것이다.
리디아 고는 뛰어난 천재성으로 지난해까지 최연소 세계랭킹 1위에 오르며 승승장구했지만, 올 시즌 들어 우승을 한 번도 이루지 못했다.
지난해 마라톤 클래식에서 우승한 이후로는 29개의 LPGA 투어 대회에서 우승을 추가하지 못했다. 그 사이 세계랭킹은 8위로 떨어졌다. 다행히 9월 인디 위민 인 테크 챔피언십 2위, 에비앙 챔피언십 3위로 좋은 흐름을 타고 있다. 뉴질랜드 여자오픈은 전환점을 만들 절호의 기회다. 사실 리디아 고는 올 시즌 초 대대적인

전환점을 만들었다. 스윙, 클럽, 캐디, 코치를 모두 바꾼 것이다. 하지만 이 변화 이후 슬럼프라는 당혹스러운 결과가 찾아왔다. 그럼에도 리디아 고는 변화가 결실을 줄 것이라고 여전히 믿는다.
AP 통신에 따르면 리디아 고는 "이 모든 변화가 좋은 변화라고 생각한다. 후회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당장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도 있다. 하지만 변화를 유지하면서 무엇이 나에게 최선인지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디아 고는 "긍정적인 것이 많다고 느낀다. 다만 내가 경기할 때 이를 다루지 못했을 뿐이다"라며 "필요한 것은 인내심이다. 인내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광주시장애인 생활체육 게이트볼 어울림대회 열려

'2017 광주시장애인 생활체육 게이트볼 어울림대회'가 100여명의 장애인 및 비장애인 게이트볼 동호인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됐다.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주관으로 27일 광주 서구 차평동 광주시전천후게이트볼장에서 열린 대회에서 서구협회 소속 서구팀이 우승을, 남구협회 빛고을팀이 준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게이트볼 동호인들의 교류를 통한 친선도모와 우의증진을 통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에 목적을 두고 있다.

또 오는 11월 개최될 '제19회 전국장애인 및고용게이트볼 대회'를 앞두고 열린 대회이기에 광주시장애인체육회와 광주시장애인게이트볼연맹은 대회가 원활히 치러지도록 진행에 만전을 기했다.
이경배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은 격려사를 통해 "게이트볼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분 없이 함께 어울려 진행되는 대표적인 생활체육 종목이다"며 "오늘 대회를 통해서 더욱더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면서 즐거운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박병호, 오프시즌에 미국서 내년 시즌 준비

박병호(미네소타 트윈스)가 오프시즌에 미국에 머물며 내년을 준비할 예정이다. 데릭 팔비 미네소타 야구 부문 사장은 27일 현지 매체 '파이니어 프레스'와 인터뷰에서 "내가 알고있는 그는 이번 오프 시즌 내내 미국에서 운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호는 올해 미국프로야구 마이네리그 트리플A에서만 111경기를 뛰며 타율 0.253(419타수 106안타), 14홈런, 60타점

을 올렸다. 빅리그 무대를 한 번도 밟지 못했지만 팔비 사장은 박병호를 여전히 높게 평가했다.
팔비 사장은 "박병호는 매우 프로답다. KBO리그에서 큰 성공을 거뒀지만 여기서는 커리어에 기록이 있었다. 다른 환경에 적응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다. 기회가 왔을 때 준비돼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추신수 1안타·1볼넷... 텍사스는 PS 탈락

추신수(텍사스 레인저스)가 안타와 볼넷으로 두 차례 출루했지만, 팀은 포스트 시즌 탈락이 확정됐다.
추신수는 27일 미국프로야구 2017 메이저리그 휴스턴 에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서 2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2타수 1안타 1볼넷을 기록했다.
텍사스는 3-14로 패배, 포스트시즌 진출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다. 5연패에 빠진 텍사스의 시즌 성적은 76승 81패로, 아

메리칼리고 와일드카드 경쟁에서 미네소타 트윈스에 7게임 차로 밀렸다.
추신수는 0-4로 뒤진 1회말 무사 1루에서 휴스턴의 에이스 선발투수 맬리스 카이클과 풀카운트 승부 끝에 볼넷을 골라 출루했다. 이후 2루로 진루했지만, 후속타 불발로 득점하지는 못했다.
3회말 2루수 팻볼로 몰려있던 추신수는 6회말 좌전 안타를 생산한 뒤 3루까지 진루했지만, 홈을 밟지는 못했다. /연합뉴스